

2006년 6월 8일

맥킨티 정부, 신규이민자에 대한 장벽 타파를 위한 법안 상정 *보다 많은 이민자들이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

토론토 – 맥킨티 정부는 전문직취업형평법 2006(Fair Access to Regulated Professions Act, 2006)이라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해외에서 교육받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도록 각종 장벽이 타파된다고 마이크 콜 온타리오 주 이민부 장관이 오늘 발표했다.

맥킨티 주수상은, “우리는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열심히 일하는 신규이민자들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 법안은 장벽을 타파하고 형평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신규이민자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우리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최초로 상정되는 이 법안에 따르면, 온타리오 주의 34 개 전문직에 대한 면허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며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자격 심사도 더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

이 상정 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안건도 들어 있다.

- 전문직 등록절차를 심사하고 각 전문직협회의 관련법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공정등록절차 감독관(Fair Registration Practices Commissioner) 신설
- 온타리오 주 밖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정보 및 소개를 받도록 도와주는 해외교육이수자 지원센터(Access Centre for Internationally Trained Individuals) 신설. 이 기관은 교육기관, 기업체 고용주, 지역사회기관 등에 대한 인턴제도 및 멘터제도의 활성화도 담당한다.

“우리는 수천 명에 이르는, 해외에서 교육받은 전문직 종사자들의 기술과 재능이 두뇌 낭비가 되지 않고 온타리오 주를 위한 두뇌 획득이 되도록 하고자 한다. 온타리오 주를 택한 수많은 해외출신 인재에 대한 장벽을 타파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입증해 보이겠다.”고 콜 장관은 밝혔다.

브라이언 헌트 온타리오 주 공인회계사협회 회장은, “해외에서 교육받은 전문직 종사자들을 노동인구에 합류시키기 위한 법안을 상정한 온타리오 주정부에 박수를 보낸다. 우리 협회의 경험으로 볼 때, 해외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에게 투명한 진로를 제공하는 것은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 전체에 큰 이득이 된다.”고 말했다.

전문직취업형평법 2006 은 신규이민자들을 돕기 위한 맥킨티 정부의 최근 시책이며, 다른 주요 시책은 다음과 같다.

- 온타리오 주 공익사업국(Ontario Public Service) 및 정부기업체에 해외에서 교육받은 전문직 종사자를 위한 6 개월 인턴제도 시행
- 해외에서 교육받은 의대졸업자의 교육 및 평가를 위한 직종을 두 배로 증설
- 온타리오 주 신규이민자를 위한 언어교육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정부 자금지원을 5 년간 9 억 2 천만 달러로 네 배 증액하는, 역사상 최초의 캐나다-온타리오 이민협정 협의
- 온타리오 주 각 지역사회에서 전문직 및 기술직 취업에 이르기까지, 신규이민자에게 모든 분야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Ontarioimmigration.ca* 신설

매년 무려 14 만 명의 신규이민자가 온타리오 주에 들어오고 있으며, 지난 2 년 동안 절반 이상이 대학교육을 받았다. 향후 5 년 내, 신규이민자가 온타리오 주 순 노동력 증가치의 100 퍼센트를 차지할 전망이다.

연락처:

Danna O'Brien
장관실
416-325-3460

Karen Ras
홍보실
416-314-7012

Disponible en français

www.citizenship.gov.on.ca
www.OntarioImmigration.ca